

불자 세상보기



이상우
동산불교대학 이사장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고 2014년 청마(靑馬)의 해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들은 이맘 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 보통 사람들은 지난날을 돌아볼 때 아쉬움을 느낀다. 그 허전한 감정 때문에서일까.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은 술자리로 대부분 진행된다.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지만 과할 시에는 그 관계마저 해치는 것이 된다. 특히 그 분위기에 휩쓸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에 소홀해 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세류에 끌려 술잔만 비우는 것은 그 아쉬움을 털어버리기 보다 아쉬움을 더하는 일이 되곤 한다. 물론 인연 있는 사람을 만나 한 해를 정리하며 정을 쌓아 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인연을 지닌 이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수행에 매진한다면 한층 더 그 인연의 의미가 커질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어떤 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것입니까?”하고 묻자 “어제보다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답하며 정진하는 삶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우리 불자들이 항상 부처님과 닮기를 서원한다. 하지만 그 서원을 얼마만큼 실천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듯싶다. 불자들이 진정으로 연말을 갇지 않게 보내는 것은 지난해를 반성하고 부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서원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가 오고 집을 떠나 ‘오제는 얼마나 착실하게 지켰는가?’, ‘작은 보시라도 몇 번이나 했는가?’, ‘얼마나 겸손 했는가?’, ‘덜뜨거나 나태하지는 않았는가?’ 등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또는 잘한 점은 자기 자신에게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다행인 점은 요즘 송년회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동안은 거창하게 송년회를 하는 것이 자랑인 때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극이나 영화보기, 산행 또는 여행하기 등과 함께 감정을 담겨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 등의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동산불교대학에서는 최근 송년회 ‘동산인의 밤’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 어울려 한국춤 공연, 사물놀이, ‘사진과 미술’ 전시회, 다도체험 등을 하며 보냈다. 식사는 도시락으로 대신했지만 그 어느 해보다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에 힘입어 12월 31일에는 심야의 종소리를 동산불교대학 강당에서 함께 들으며 철야 열불정진을 진행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새해 아침에는 금강산 건봉사로 이동해

등공대를 참배하고 화진포에서 함께 불심을 다지며 인연을 더해갈 것이다. 어떻게 보내면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과 함께 새로운 서원을 다지는 것은 불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청색 맑은 행운을 상징한다고 한다. 청색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의미로 말의 성품과도 비슷하다. 우리 모두가 활발하고 진취적인 정진의 서원을 세운다면 2014년은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세월은 무시무쌍한데 우리는 어느 시점을 구분지어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온다고 한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은 해가 오감이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지난해를 반성하고 새해의 서원을 세우며 부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다. 갑오년 새해를 앞두고 불자들이 수행에 매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길 간절히 바란다. 새해에는 현대불교 신문사와 독자님들께 부처님의 가르치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社說

불교유산 세계화 위해 역량 모으자

연등회와 발우공양, 전통 산사 7곳 등 한국불교의 전통 유·무형 유산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서울시는 연등회와 발우공양을 비롯해 한양도성, 용산 미군기지 등 총 8건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록에 올리기로 했으며, 문화재청도 한국의 전통산사 10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세 건의 불교문화유산은 한국불교의 특징을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연등회는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잘 보여주며, 발우공양은 평등, 절제, 공동체, 생명존중사상을 담고 있어 오늘날 인류적 차원에서 지향하는 가치인 청빈, 소박함, 친환경 요소를 갖췄다고 평가된다.

‘한국의 전통산사’에 이름을 올린 법주사, 마곡사, 대흥사, 선암사, 부석사, 봉정사, 봉도사 총 7곳은 선교융합과 예불, 강학, 공동생활이 복합된 불전, 강당, 승방이 공존하는 종합 수행도량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와 과거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며 보존돼 있는가’라고 한다. 연등회와 발우공양, 전통 산사 모두 현재의 신앙과 의례 형태이자 수행 공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인류 정신문화의 보고인 것이다.

이제는 이런 전통문화유산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17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이 이렇게 오롯이 남아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문화는 종교도 국경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기대해본다.

봉은사 운영백서에서 배우자

서울 강남 봉은사가 최근 운영백서를 발간했다. 사찰에선 이례적인 일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운영백서에 실린 분야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포교 및 교육과 종무행정, 재정 등 중장기 계획 성과와 현황, 향후 계획 등이다.

봉은사는 ‘봉은사 중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를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봉은사 천일기도는 前 주지 명진 스님의 발원으로 2006년 12월 5일 동안 거행돼 함께 시작돼 2009년 8월 30일 회향됐다. 봉은사는 천일기도에 맞춰 중창불사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바통을 이어받은 진화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며 관세음보살 ‘42대원 성취를 위한 천수다라니 독송 3년 대정진’을 진행했다.

봉은사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일요일법회 활성화다. 2007년부터 봉은사는 ‘선종 수사찰’ 이름에 걸맞게 수행 중심의 법석을 마련했다. 2007년~2009년 평균인원이 1000명 이내였던 봉은사 일요일

법회는 선교율법회 실시 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

봉은사는 재정도 공개했다. 2006년부터 전체 세입 현황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2006년 봉은사 전체 세입예산은 총 119억 8000만원이었는데 특별수입 등의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실제 수입액은 77억 5100만원이었다.

2012년에는 실제 수입액이 131억 1300만원으로 약 69.1%가 증가했다. 이런 재정 증가는 봉은사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재정기여도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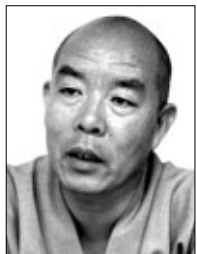
이렇게 방대한 양의 백서 발간은 주지 스님의 임기가 끝나 교체되더라도 불사 및 사찰이 벌이는 사업을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봉은사를 계기로 전국 사찰에서도 신도들에게 자기질의 작은 역사가 될 수 있는 백서 발간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본다.

발언대

가톨릭의 시국미사를 시작으로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현재 정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종교인들의 이런 행보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이는 대종교 인사가 있다면, 종교인의 정치 참여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도 존재한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종교인 정치 참여 논란

사회의 목탁으로서 역할해야



보광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종교인이 정치에 대해 무조건 담을 쌓고 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직접적인 정치활동은 금지해야 하지만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쓴 소리를 할 수 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데에 대해서는 종교인들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종교인 또한 국민의 일부이며, 국가 구성원 중 하나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는 과감히 나서야 한다. 종교인을 떠나 국민의 한명으로서 올바른 여론수렴에 동참해야 한다.

현재 정국은 극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여야 그리고 정부가 풀지 못하고 있기에 종교인들이 나선 것이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한쪽에 치우쳐 행동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강조하셨다. 개별사안에 대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높은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큰 물줄기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종교는 종교답게, 정치는 정치답게



송재운
동국대 명예교수

신라 총담 스님은 자신이 지은 향가인 ‘안민가’를 통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하되 나라는 평안해진다’고 노래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종교인은 종교인다운’ 부분이 필요하다. 종교인의 본분은 중생 구제이다. 너무 깊은 정치적 발언은 자칫 국민 통합이 아닌 갈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야당은 종교인의 시국선언을 정략에 이용하면 안되며, 여당 역시 종교인들이 왜 목소리를 높이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할 때 한국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반목보다는 화합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

찬반

“국가 안위가 우선돼야 종교인도 존재”



최용춘
한국국수불자협회 회장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가 발언한 연평도 포격관련 발언 등으로 인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본다. 또한 종교인들이 NLL발언 등을 하지만 북한에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에 모순을 느낀다. 종교인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국가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부가 복지 예산을 줄였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25전쟁 때를 생각해볼라. 당시 종교인들이 숙청당하고 학살됐다. 국가의 안위가 우선돼야 종교인도 존재할 수 있다. 종교인은 국민들이 힘들어할 때 동행하며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정치적 편가름을 한다든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정치·종교 상호 견제 필요



박광서 교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

종교와 정치가 무 자부트 분리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혹은 생명권을 침해한다면 종교가 정치를 혹은 정치가 종교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수혈을 거부한다고 해보자. 그럴 때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 물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톨릭정의구원사제단은 아직까지 사실 여부가 판단이 안 된 문제를 사실이라 가정하고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고 나섰다. 점에서 조심스럽게 앞으로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정치 개입은 특정 종교나 종교인의 이익을 위해 종교가 국가와 아합을 벌이는 것이다. 정의구원사제단은 자신의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대한 견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해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 (02)2004-8200 / 대표팩스 (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안내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4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5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6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7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9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10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1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12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2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빙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국,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